

고 이영선 집사의 장례식까지의 여정

고 이영선 집사는 15년 전 우리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신앙심이 깊지는 않았지만 꾸준히 차량운행으로 교회를 섬겨주셨습니다. 하지만 어떤 문제 때문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교회를 떠나게 되었고, 그 이후로 신앙생활을 쉬었습니다.

가정에서의 삶도 쉽지 않았고, 직업적으로도 별다른 재능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개인적이고 인격적인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주안이를 정말 아끼고 사랑해주시는 모습에서 집사님 안에 있는 선함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후 인도네시아교회와 연합체육대회 당시 우리교회 축구팀을 선수로 뛰여주신 일 외에는 별다른 왕래가 없다가 작년 폐암이 발병하면서부터 다시 관계가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찾아갔을 때는 저를 얼마나 쌀쌀맞게 대했는지 모릅니다. 기도를 해도 별로 반응도 없고, 제가 말을 걸어도 별다른 대꾸도 해주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찾아가다보니 점점 저를 반겨주시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날이 갈수록 암은 집사님의 몸을 빠르게 잠식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계속된 항암치료로 인해서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살이 다 빠져 뼈썩마르게 되었고, 머리도 까까머리로 변해갔습니다. 예전에 그 잘생긴 모습은 어디가고 너무나도 초라한 모습으로 변해 계신 모습을 보고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완치를 놓고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않았고, 계속해서 말씀으로 도전하고 위로하고, 복음을 전하기도 했고,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권면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의 소망과는 달리 올해 4월을 기점으로 더 이상 치료하는 것이 소용이 없다는 의사의 진단을 받게 되었고, 결국 호스피스 병동으로 옮겨지는 일을 겪게 되었습니다.

호스피스 병동으로 옮겨질 때 얼마나 힘들어하셨는지 모릅니다. 죽음을 직면한다는 사실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또 버림받고 집에서 내쫓기는 것과 같이 느껴지면서 그랬는지 많이 힘들어하셨습니다.

하지만 호스피스 병동으로 옮겨진 이후로 더 자주 찾아뵈려고 했고, 더 간절히 기도했고, 정말 완치를 놓고, 놀라운 기적으로 치료를 해주십사 정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내 믿음대로 되리라는 말씀을 붙잡고 치유를 놓고 정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짙어지는 병색앞에서 제 기도가 무기력하게 느껴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지만 저의 마음을 집사님은 알아주셨고, 제 기도를 들으실 때마다 아멘으로 화답해주셨고, 기도가 끝나면 제 손을 꼭 잡아주시고, 병실을 들어오고 나갈 때마다 세상 밝은 미소로 맞아주셨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우즈베크에 다녀오는 동안에 천국으로 부르심을 받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부고를 듣고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제 기도예 이런 방식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얼마나 따졌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들이 있었습니다.

유가족들을 위로하기를 원합니다. 오랜 시간 병수발로 고생한 가족들을 위로하기를 원합니다. 장례는 끝났지만 주님은 여전히 하실 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새 일을 행하실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놓고 함께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10.11 여러분의 가족 이목사로부터

주일오전예배 말씀요약

선교보고

구역모임

남녀전도회 모임